

주요 노동동향

경제일반

◆ 2007년 12월 생산, 소비, 투자 전부문 증가

○ 2007년 연간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16.1%), 의료업(8.4%) 등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음.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투자도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음.

○ 2007년 12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계절조정)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12.4%)로는 증가하여 증가율이 지난달보다 확대되었으며,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6%, 7.4%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였음(전월대비로는 0.4% 감소, 4/4분기로는 전분기대비 3.3%와 전년동분기 14.1% 증가하였음. 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의료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0.1% 증가하였음(4/4분기로는 전분기대비 1.9%, 전년동분기대비 7.5% 증

가, 그림 2 참조).

- 12월 소비재 판매는 의복, 차량용 연료 등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가전제품, 컴퓨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1.7% 감소하였음. 투자는 운수장비, 통신기기 등의 투자가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5		2006						2007					
		4/4	연간	1/4	2/4	3/4	4/4	12월	연간	1/4	2/4	3/4	4/4p	12월p	연간
생산	산업생산	10.3	6.3	12.8	11.5	11.3	5.2	3.0	10.1	3.3	7.0	8.3	13.8	12.4(-0.4)	8.2
	제조업 생산	10.4	6.2	13.4	12.1	11.8	5.6	3.4	10.5	3.4	7.1	8.6	14.1	12.8(-0.4)	8.4
	출하	8.6	5.6	9.7	9.0	9.2	3.8	3.0	7.8	4.4	7.2	7.0	12.0	10.1(-4.1)	7.7
	수출	13.5	10.5	13.1	14.2	15.7	5.6	4.8	11.9	6.7	9.9	11.6	18.4	18.9(-6.1)	11.8
	내수	4.6	1.8	7.1	4.9	3.8	2.2	1.8	4.5	2.7	4.9	2.7	6.5	2.6(-2.2)	4.2
	서비스업 생산	5.9	3.6	6.2	5.4	4.5	4.8	5.4	5.2	5.6	6.4	6.9	7.5	5.7(0.1)	6.7
소비	소비재 판매	6.9	4.1	5.3	6.1	2.9	4.5	3.3	4.7	7.1	5.2	8.6	5.5	2.6(-1.7)	6.6
투자	설비투자	7.0	6.3	6.2	6.7	11.8	5.1	2.3	7.4	11.3	12.1	-1.9	5.0	7.4(9.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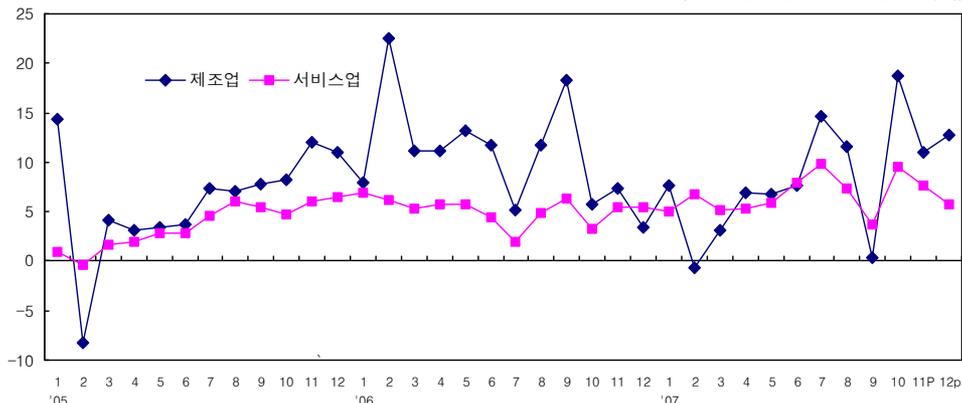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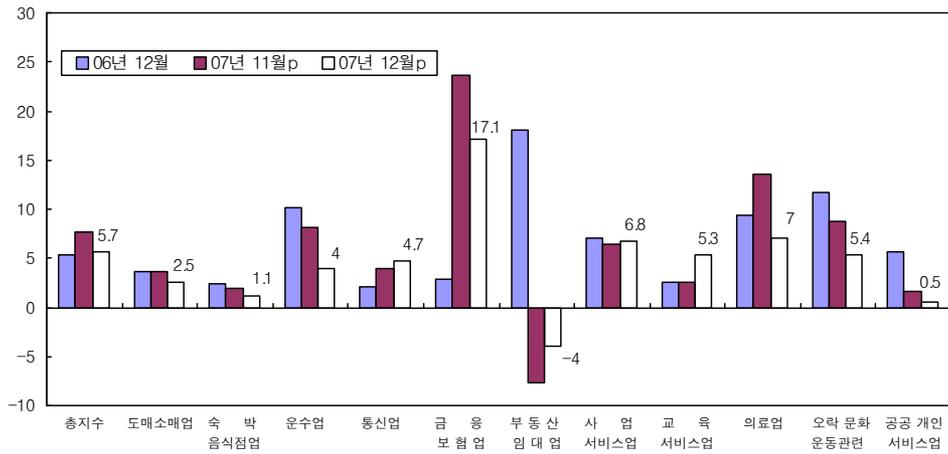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0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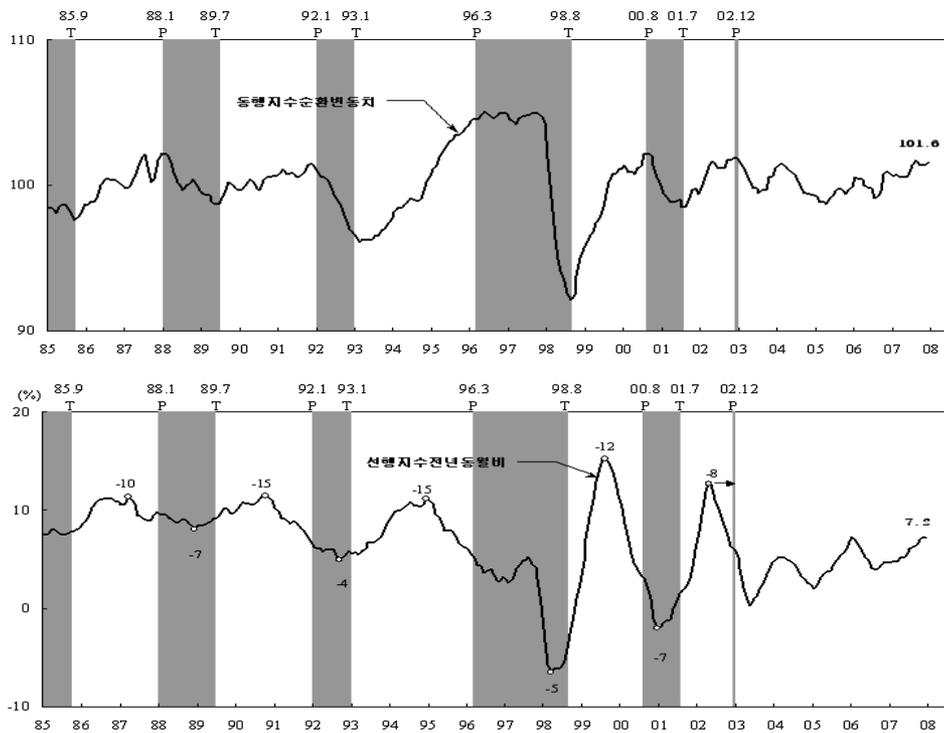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08. 1.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6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7년 경제활동인구는 24,216천 명으로 전년대비 238천 명(1.0%)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124천 명으로 146천 명(1.0%)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092천 명으로 91천 명(0.9%) 증가함.
- 2007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4.0%)과 여성(50.2%) 각각 전년대비 0.1%p 하락함(그림 4 참조).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하락한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상승하였으며, 특히 50대(71.2%, 1.1%p)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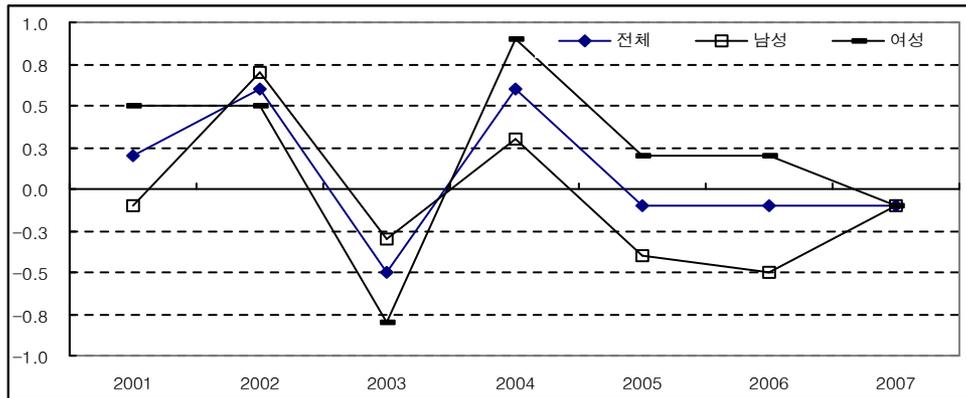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2007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2,957 (0.2)	23,417 (2.0)	23,743 (1.4)	23,978 (1.0)	24,084 (1.0)	23,773 (1.1)	24,216 (1.0)	24,316 (1.0)	23,993 (0.9)
참가율	61.5	62.1	62.0	61.9	61.9	61.1	61.8	61.8	61.0
취업자	22,139 (-0.1)	22,557 (1.9)	22,856 (1.3)	23,151 (1.3)	23,303 (1.2)	22,989 (1.3)	23,433 (1.2)	23,582 (1.2)	23,257 (1.2)
고용률	59.3	59.8	59.7	59.7	59.9	59.1	59.8	60.0	59.1
실업자	818	860	887	827	780	784	783	734	736
실업률	3.6	3.7	3.7	3.5	3.2	3.3	3.2	3.0	3.1
비경제활동인구	14,383 (2.4)	14,300 (-0.6)	14,557 (1.8)	14,784 (1.6)	14,807 (1.2)	15,132 (1.0)	14,954 (1.2)	15,000 (1.3)	15,349 (1.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08. 1.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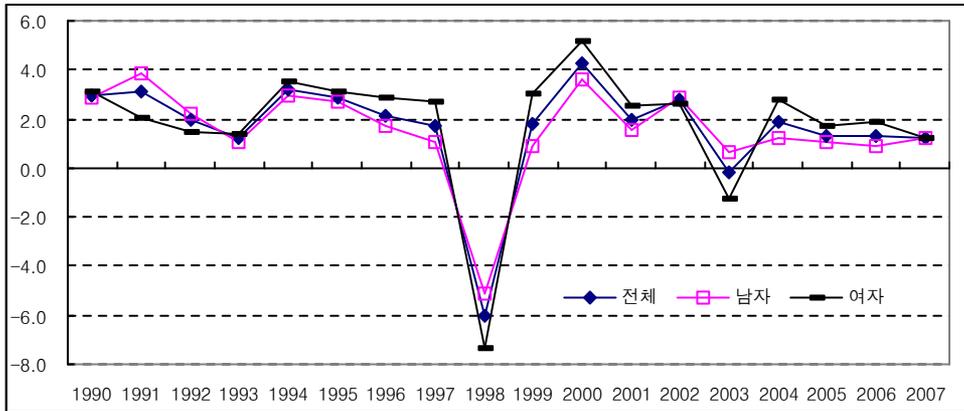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7년 고용률은 59.8%로 전년대비 0.1%p 증가
 - 남성의 고용률은 71.3%로 전년과 같았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48.9%로 전년대비 0.1%p 증가함.
- 2007년 취업자는 23,433천 명으로 전년대비 282천 명(1.2%)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607천 명으로 전년대비 163천 명(1.2%), 여성 취업자는 9,826천 명으로 전년대비 120천 명(1.2%)이 증가함(그림 5 참조).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상과 15~19세에서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감소함.
- 2007년 실업자는 783천 명으로 전년대비 44천 명(-5.4%)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대비 0.3%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17천 명으로 전년대비 16천 명(-3.1%)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66천 명으로 전년대비 28천 명(-9.5%)이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전년대비 0.1%p 하락한 3.7%를 보였고, 여성이 0.3%p 하락한 2.6%를 기록함.
- 2007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4,954천 명으로 전년대비 171천 명(1.2%)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4,960천 명으로 전년대비 75천 명(1.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994천 명으로 전년대비 96천 명(1.0%)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21천 명으로 전년대비 44천 명(3.4%) 증가함.

※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1,238천 명(2005) → 1,277천 명(2006) → 1,321천 명(2007)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2007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산업	22,139 (-0.1)	22,557 (1.9)	22,856 (1.3)	23,151 (1.3)	23,303 (1.2)	22,989 (1.3)	23,433 (1.2)	23,582 (1.2)	23,257 (1.2)
농림어업	1,950 (-5.8)	1,825 (-6.4)	1,815 (-0.5)	1,785 (-1.7)	1,757 (0.2)	1,469 (0.8)	1,726 (-3.3)	1,690 (-3.8)	1,399 (-4.8)
제조업	4,205 (-0.9)	4,290 (2.0)	4,234 (-1.3)	4,167 (-1.6)	4,157 (-1.5)	4,153 (-1.6)	4,119 (-1.1)	4,120 (-0.9)	4,127 (-0.6)
건설업	1,816 (4.0)	1,820 (0.2)	1,814 (-0.3)	1,835 (1.1)	1,862 (1.6)	1,813 (2.7)	1,850 (0.8)	1,853 (-0.5)	1,808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52 (-2.4)	5,862 (0.2)	5,806 (-1.0)	5,762 (-0.8)	5,740 (-1.2)	5,774 (-1.2)	5,726 (-0.6)	5,723 (-0.3)	5,764 (-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139 (3.4)	6,558 (6.8)	6,923 (5.6)	7,251 (4.7)	7,394 (4.2)	7,371 (4.1)	7,600 (4.8)	7,762 (5.0)	7,735 (4.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0 (0.2)	2,187 (1.2)	2,246 (2.7)	2,333 (3.9)	2,373 (3.4)	2,390 (3.3)	2,393 (2.6)	2,415 (1.8)	2,4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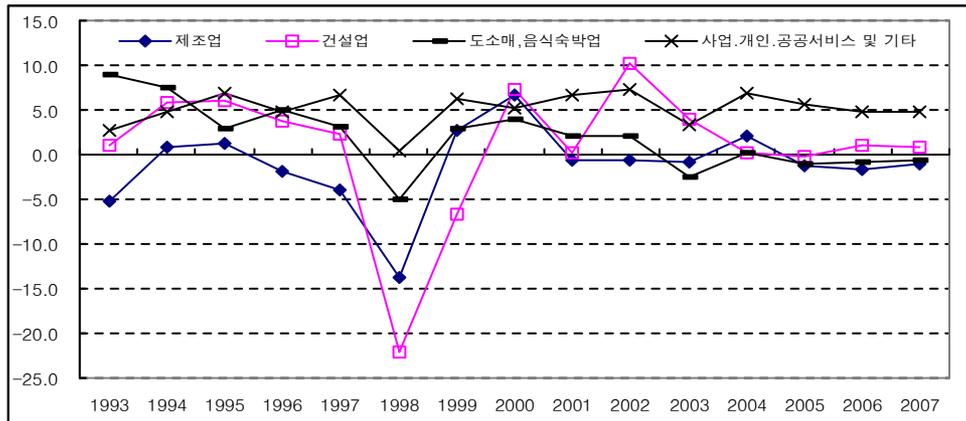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08. 1.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

- 2007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9천 명, 4.8%), 전기·운수·통신·금융업(61천 명, 2.6%), 건설업(15천 명, 0.8%)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8천 명, -3.3%), 제조업(-48천 명, -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7천 명, -0.6%)에서는 감소함.
 - 2005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음(그림 6 참조).

◆ 상용근로자 증가, 비임금근로자 감소

- 2007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463천 명으로 전년대비 138천 명 (-1.8%)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970천 명으로 전년대비 420천 명(2.7%)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416천 명, 5.1%)와 임시근로자(30천 명, 0.6%)는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26천 명, -1.2%)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감소세는 지속됨(그림 7 참조).
- 2007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2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2천 명(7.5%)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81천 명으로 61천 명(0.3%)이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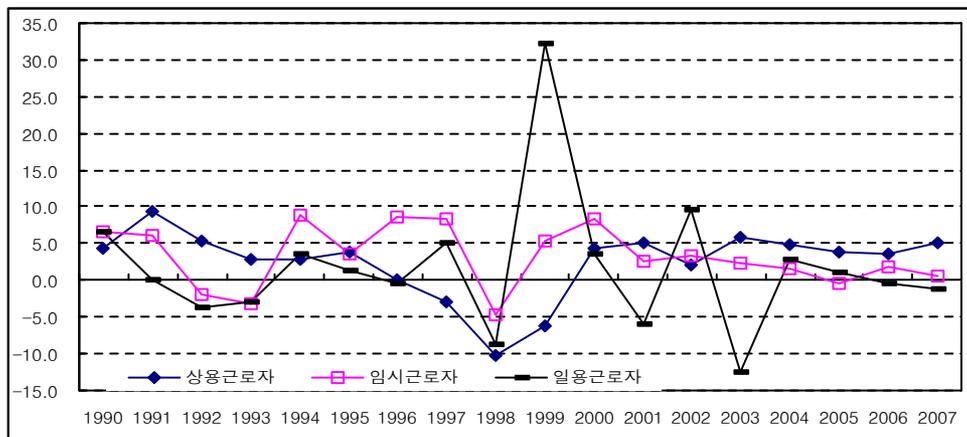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2007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22,139 (-0.1)	22,557 (1.9)	22,856 (1.3)	23,151 (1.3)	23,303 (1.2)	22,989 (1.3)	23,433 (1.2)	23,582 (1.2)	23,257 (1.2)
비임금근로자	7,736 (-3.1)	7,663 (-0.9)	7,671 (0.1)	7,600 (-0.9)	7,561 (-1.5)	7,267 (-2.1)	7,463 (-1.8)	7,426 (-1.8)	7,154 (-1.6)
자영업주	9,043 (-2.4)	6,110 (1.1)	6,172 (1.0)	6,135 (-0.6)	6,121 (-1.0)	5,967 (-1.7)	6,049 (-1.4)	6,035 (-1.4)	5,872 (-1.6)
무급가족종사자	1,694 (-5.7)	1,553 (-8.3)	1,499 (-3.5)	1,466 (-2.2)	1,440 (-3.6)	1,300 (-4.0)	1,413 (-3.6)	1,391 (-3.4)	1,282 (-1.4)
임금근로자	14,402 (1.6)	14,894 (3.4)	15,185 (2.0)	15,551 (2.4)	15,743 (2.6)	15,722 (2.9)	15,970 (2.7)	16,156 (2.6)	16,104 (2.4)
상용근로자	7,269 (5.9)	7,625 (4.9)	7,917 (3.8)	8,204 (3.6)	8,367 (4.8)	8,343 (4.6)	8,620 (5.1)	8,790 (5.1)	8,750 (4.9)
임시근로자	5,004 (2.4)	5,082 (1.6)	5,056 (-0.5)	5,143 (1.7)	5,188 (1.3)	5,234 (1.7)	5,172 (0.6)	5,156 (-0.6)	5,176 (-1.1)
일용근로자	2,130 (-12.5)	2,188 (2.7)	2,212 (1.1)	2,204 (-0.4)	2,188 (-2.4)	2,144 (-0.2)	2,178 (-1.2)	2,211 (1.0)	2,178 (1.6)
36시간 미만	2,417 (3.7)	2,572 (6.4)	2,794 (8.6)	2,810 (0.6)	2,686 (2.4)	2,821 (-2.8)	3,022 (7.5)	2,549 (-5.1)	2,642 (-6.4)
36시간 이상	19,438 (-0.8)	19,673 (1.2)	19,730 (0.3)	20,020 (1.5)	20,367 (0.9)	19,898 (1.7)	20,081 (0.3)	20,806 (2.2)	20,398 (2.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08. 1.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청년층(15~29세)과 고졸 이하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

- 2007년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30대에서 증가함.
 - 2007년 연령별 실업자는 전년대비 청년층(15~29세)(-37천 명, -10.0%), 40대(-17천 명, -11.3%)에서 감소한 반면, 30대(7천 명, 3.6%), 50대(2천 명, 2.3%), 60세 이상(0천 명, 1.1%)에서 증가함.
 - 2007년 연령별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7.2%, -0.7%p), 40대(2.0%, -0.3%p), 50대(2.1%, -0.1%p)에서 감소한 반면, 30대(3.2, 0.2%p)에서는 증가하였고, 60세 이상(1.4%, 0.0%p)에서 전년대비 동일함.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대비 중졸 이하(-17천명, -12.2%)와 고졸(-31천명, -7.4%)에서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3천명, 1.1%)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대비 중졸 이하(2.1, -0.3%p), 고졸(3.8, -0.3%p)에서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3.2%, -0.2%p)에서는 증가함.
- 2007년 전체 실업자 783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1천 명으로 전년대비 3천 명,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42천 명으로 42천 명이 감소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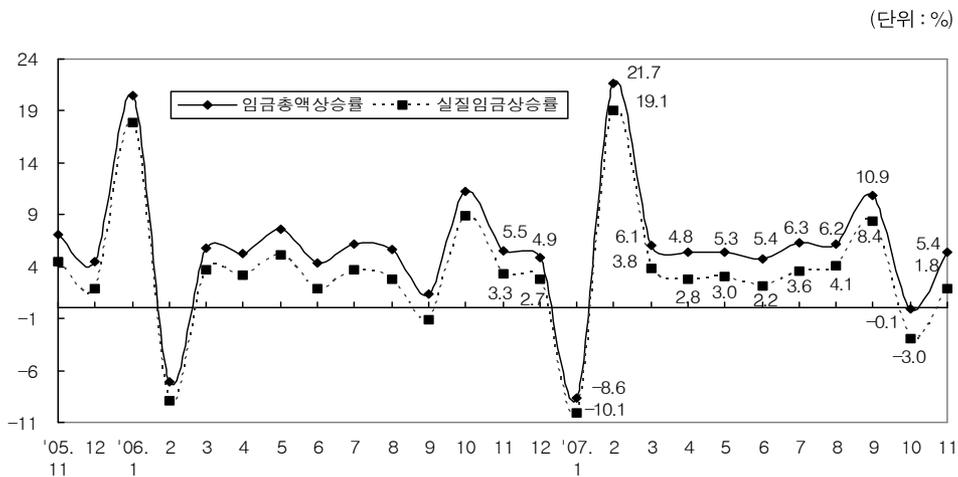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2007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818(3.6)	860(3.7)	887(3.7)	827(3.5)	780(3.2)	784(3.3)	783(3.2)	734(3.0)	736(3.1)
15~29세	401(8.0)	412(8.3)	387(8.0)	364(7.9)	356(7.8)	362(7.9)	328(7.2)	312(7.0)	324(7.3)
30~39세	190(3.0)	196(3.1)	210(3.3)	191(3.0)	179(2.8)	171(2.7)	198(3.2)	183(2.9)	179(2.9)
40~49세	135(2.2)	147(2.3)	165(2.5)	152(2.3)	136(2.1)	134(2.1)	135(2.0)	126(1.9)	125(1.9)
50~59세	70(2.2)	78(2.3)	93(2.5)	85(2.2)	81(2.0)	90(2.3)	87(2.1)	78(1.8)	74(1.7)
60세 이상	22(1.0)	27(1.2)	32(1.3)	36(1.4)	29(1.1)	27(1.1)	36(1.4)	35(1.3)	34(1.4)
중졸 이하	132(2.2)	148(2.5)	154(2.6)	136(2.4)	126(2.2)	128(2.4)	119(2.1)	109(2.0)	109(2.1)
고 졸	432(4.3)	460(4.5)	472(4.6)	420(4.1)	402(3.9)	410(4.0)	389(3.8)	372(3.7)	391(3.9)
대졸 이상	253(3.6)	252(3.5)	261(3.4)	272(3.4)	253(3.1)	246()	275(3.2)	253(2.9)	236(2.7)
취업무경험실업자	72	53	42	44	42	50	41	40	47
취업유경험실업자	746	807	845	784	739	734	742	694	689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08. 1.

임금 동향

- ◆ 2007년 11월 임금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5.4% 상승
- 2007년 11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435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4%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5.5%보다 낮은 상승률임.
 - 1~11월 임금총액은 2,611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상승
- 실질임금은 1.8% 상승
 - 2007년 1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1.8% 상승함.
 - 1~11월 실질임금 또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3.1%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월, 2005=100.0, %)

	2006				2007					
	1/4	2/4	3/4	4/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1월
	분기	분기	분기	분기				10월	11월	
임 금 총 액	2,487 (5.9)	2,400 (5.6)	2,559 (4.3)	2,722 (7.0)	2,626 (5.6)	2,524 (5.2)	2,759 (7.8)	2,557 (-0.1)	2,435 (5.4)	2,611 (5.6)
정 액 급 여	1,839 (6.6)	1,856 (7.0)	1,878 (6.6)	1,923 (6.6)	1,952 (6.2)	1,974 (6.4)	2,000 (6.5)	2,004 (6.3)	2,002 (6.1)	1,980 (6.3)
초 과 급 여	149 (5.1)	160 (6.5)	157 (6.7)	163 (3.5)	156 (4.7)	167 (3.9)	166 (5.5)	182 (10.1)	168 (4.7)	165 (5.2)
특 별 급 여	499 (3.8)	384 (-0.7)	524 (-4.0)	636 (9.2)	517 (3.7)	383 (-0.1)	593 (13.2)	370 (-26.9)	266 (0.7)	465 (2.6)
실 질 임 금 지 수	102.0 (3.8)	97.8 (3.3)	103.4 (1.7)	110.3 (4.7)	105.5 (3.4)	100.3 (2.7)	109.0 (5.4)	100.4 (-3.0)	95.6 (1.8)	103.7 (3.1)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01.4 (2.1)	102.1 (2.2)	102.9 (2.5)	102.6 (2.2)	103.5 (2.1)	104.6 (2.4)	105.3 (2.3)	105.9 (3.0)	105.9 (3.5)	104.7 (2.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노사관계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

○ 2008년 1월 25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함(표 7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5건으로 전년동기(6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도 14,824일로 전년동기(33,604일)대비 55.9% 감소함.

〈표 7〉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개소, 일)

	2007. 12. 5	2008. 1. 25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개소)	6	5
근 로 손 실 일 수 (일)	33,604	14,824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규칙) 입법예고

○ 본 개정령(규칙)은 한미FTA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수준 인상,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수준 인상,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개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장려금 지급,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수급방지 강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 임의 가입 신청 간소화 등임.

◆ 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자의 재취업률, 실업급여 수혜율 등 꾸준히 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는 9백 6만 3천 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685천 명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감소추세임.

－ 실업급여 수혜율(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은 34.8%로 전년대비 4.8%p 상승하였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는 232천 명으로 나타나 재취업률은 2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실업급여의 고용안정망으로서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노총,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사용기간 2년→3년)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하여 성명 발표

○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개정방향에 대해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현행 비정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무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아니라 비정규직법 개악이라고 주장

－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비정규직의 확산과 편법적 남용을 막고, 차별을 적극 시정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전경련 차기정부 노동정책-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역점(2008년 노사 관계전망조사)

- 전경련은 '2008년 노사관계전망조사'에서 신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27.7%),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5.6%), 노사관계 안정(15.2%) 순으로 응답함.

◆ 민주노총, 서울지노위의김포공항청소용역여성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판정 철회 촉구

- 서울지노위는 '김포공항청소용역여성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각각 심판회의와 조정회의를 열어 여성노조가 현행 노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각하판정 및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
-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이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첫째, 실질적으로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면 노조조직형태를 불문하고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노조 또는 신설 노조 둘 중 하나라도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라면 노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판례의 일관된 입장임.
 - 따라서 '김포공항청소용역여성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초기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하여 기업 내에 분회나 지회가 설치되더라도 무조건 현행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규약상의 조직대상범위 규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즉각 복수노조 판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KL